

끝나지 않는 애도의 마음으로 2022년을 기억하며
—『여성문학연구』 57호 발간에 부쳐

한국여성문학학회 하반기 학술대회가 있었던 날이 10월 29일이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유령처럼 이 땅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과 젠더 폭력의 기록으로서 전쟁을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사유와 고민을 나누는 발표를 하루 종일 들었던 날 밤,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사와 다시 마주해야 했다. 지옥을 방불케 한 10·29 참사를 겪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지도 못했는데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거나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 드는 행태를 보며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비겁과 졸렬이 횡행하는 사이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까운 목숨 하나가 더 졌다. 슬픔의 지옥에 갇혀버린 이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2022년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땅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같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고 지구 곳곳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상식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기성찰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울타리 밖 적을 향해서만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땅을 배회하고 우리 안을 떠도는 유령들을 직시하며 슬픔을 거름 삼아 우리의 마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여성문학연구』 57호에 실린 글들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여성문학연구』 57호의 특집 주제는 〈젠더 폭력의 기록과 기억의 현장들〉로 꾸려 보았다. 지난 10월 29일 경희대학교에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특집 논문 중 5편의 논문으로 특집을 구성했다. 멀리는 한국전쟁으로부터 가까이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젠더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애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5편의 특집 논문들이 선사해 줄 것

이다.

소영현의 「한국전쟁의 유령들」은 한국전쟁을 국가 폭력이자 젠더 폭력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땅에 오랜 세월 드리워진 한국전쟁의 유령들에 대한 관심이 곧 애도될 수 없는 삶/죽음, 발화할 수 없는 과거/기억, 언어화되지 못한 고통/목소리에 대한 관심임을 피력한다. 지금 이곳의 현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전쟁의 유령들이 왜 유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하며 유령을 만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지닌 글이다. 강용준, 윤홍길, 박완서, 김금숙의 작품을 거쳐 한국전쟁의 유령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이 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식민과 냉전으로 복잡하게 뒤얽힌 시대이자 공간을 돌아보고 식민과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지금 이곳을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이한나의 「학살된 ‘양민(良民)’, 그리고 여성들—노근리 사건 이후를 그리는 이현수 소설의 의도된 산만함에 관해」는 노근리 사건을 다룬 이현수의 소설 『나홀』을 대상으로 이 작품이 ‘산만함’을 경유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 글이다. 선행연구에서 여러 서사의 중첩이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평가되어 온 것에 착안해 이 글은 이 소설에서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좇는 과정이 산만하게 에둘러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캐묻고자 한다. 노근리 사건에서 ‘사라진 여성들’을 추적하는 이현수 소설은 희생당한 양민을 재현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의 테두리에 들어서지도 못한 학살 이후 여성의 삶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주목한다.

황선희의 「전쟁과 여성의 아카이브, 허수경의 시세계」는 첫 시집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통찰을 드러낸 허수경의 전쟁 관련 시에 주목함으로써 이전 세대 여성시인들과 변별되는 허수경 전쟁시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 전쟁을 간접 경험한 세대이자 여성시인으로서 허수경은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일상과 사람들을 고고학적 방법론으로 기억하고 기록해 아카이빙하고 있음에 특히 주목한다. 허수경이 발굴한 ‘여성의 시간’은 대문자 역사가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허수경의 시에서 전쟁 이후 생략되거나 사라져버린 자들의 ‘작은 전쟁들’을 확장하고 기억하는 감정으로 슬픔을 의미화하거나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이 전쟁 경험에서 언어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아카이빙

해 시화하고 있음에 주목한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기 바란다.

김상숙의 「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은 한국에서 해방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위로부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 등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음에 주목한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자나 지역민을 이른바 ‘적성분자’나 ‘적성부락’으로 선별해 섬멸함으로써 반공 종족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살 대상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좌제에 기반을 둔 학살에서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학살됐고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전후에도 여성에 대한 연좌제 폭력은 군사적 가부장제와 결합해 나타남으로써 근대국가의 근대성 확립이 가부장제와 연좌제라는 중첩된 전근대성을 활용하고 규율화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장영은의 「트라우마와 공부—그레이스 조의 자기서사와 모녀서사」는 그레이스 조의 회고록 『전쟁 같은 맛(Tastes Like War)』을 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읽음으로써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공부 대상으로 삼은 딸의 자기서사가 내포한 문학적 함의를 분석한 글이다. 뒤늦게 어머니가 한국에서 성노동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딸 그레이스 조는 어머니의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폭력적인 세상과 맞서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가해진 부당한 사회적 낙인을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한다.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딸에게 전이되었다고 해서 모녀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것은 아님을 증명해 감으로써 어머니에게 온갖 편견과 혐오를 극복하고 딸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게 가르친 여성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57호에는 다양한 주제의 일반 논문도 6편 실렸다. 박화성, 고정희 등의 작품에 주목한 논문부터 박순동, 이가형의 수기, 일상툰과 SF, 여성 에세이에 대한 고찰까지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포괄하고 있으니 오늘의 여성문학이 포괄하는 학문적 사유의 진폭이 얼마나 넓고 다채로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승희의 「포스트/식민 여성성장소설의 젠더지리—박화성의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허운의 「버마 전선 학병의 자기서사와 기억의 정치—박순동, 이가형을 통해 본 학병 서사와 ‘위안부’ 서사의 교차」, 안지영의 「고정희의 여

성주의적 전회와 여성신학의 영향», 박재연의 「폭력을 재현하는 일상툰과 ‘공감’의 윤리학», 안서현의 「여성 SF가 사유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 정고은의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의 향방—‘여성 에세이’를 중심으로」 등 6편의 일반 논문 역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글들이라 자평해 본다.

그 밖에도 추천석사논문으로 이지훈의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를 소개한다. 5·18 소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그동안 있어 왔지만 장애 재현이라는 주제로 5·18 소설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5·18 문학에 접근하는 신진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5·18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장애 재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5·18의 소설화가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구명하면서 이러한 소설의 기획이 5·18의 진실에 가닿기 위한 적극적인 응답이었음을 고려하면서도 이런 재현이 어떤 인식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심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번 호 서평으로는 김재용·이상경의 공동 저작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소명출판, 2022)에 대해 비평한 임옥규의 「불온과 순수 사이, 여성 사회문화사에 대한 문학적 탐사」를 실었다. 이 글은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이 북한 여성문학의 불가능하면서도 가능한 함의를 추적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여성문학에서 여성의 문제를 포착하는 방식이나 북한 여성작가가 주목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등에 대해 이 책은 북한문학장에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답을 들려준다. 이 책은 북한 정책과 문예 이론이 표방하는 실제와 다르게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다성성의 목소리를 포착함으로써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여성문학사를 조명하고 여성문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022년을 마감하면서 『여성문학연구』 57호에 특집과 일반을 포함해 11편의 논문과 추천석사논문, 서평까지 실음으로써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토록 곤혹스러운 난경 속에서도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치열하게 읽고 써 왔음을 새삼 알겠다. 나날의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 각자의 존엄을 기억하며 서로 연대하고 돌보면서 쓰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편집위원장 이경수